

다시 찾은 환한 미소...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난 6일 한화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 윤영철이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 한 후 환하게 미소지으며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좌완영건윤영철, 8경기 만에 시즌 첫 승 신고

6일 한화戰 위기관리 능력 장착, 6이닝 7K 무실점 '완벽投' 무너진 선발진 완전체 가동 청신호, 팀 분위기 반등 활력소



KIA 타이거즈의 좌완 영건 윤영철이 마친 내 제 기량을 되찾으며 팀 마운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눈부신 호투를 연이어 펼치며 시즌 초반의 부진을 털어내고, 팀의 확실한 반등을 이끌어낼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철은 지난 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7삼진 1사구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치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최고 구속 141km의 직구를 비롯해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1회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한 그는 2회 2사 이후 2루타를 내줬으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으며 이닝을 매조지었다.

3회를 1개의 안타만 허용한 채 이닝을 삭

제한 뒤 4회에는 1사 1,2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며 빠른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결국 윤영철은 6회까지 한화 타선을 무실점으로 완벽 봉쇄하며, 임무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날 승리로 윤영철 선수는 시즌 8경기 등판 만에 감격적인 첫 승을 신고했다.

비록 시즌 초반 성적은 1승 5패, 평균자책점 5.40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달 31일 kt와의 경기에서도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치는 등 최근 3경기 연속 안정적인 피칭으로 흐트러졌던 팀 선발 마운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 시즌 KIA 선발 마운드는 외국인 투수 네일과 올라가 꾸준히 중심을 잡고, 국내파에서는 김도현이 유일하게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양현종과 윤영철이 시즌 초반 부진에 빠지면서 팀 전력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있었다.

윤영철은 4선발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성

적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가 지난달 2일 1군으로 복귀했다.

애초 불펜에서 던지며 구위를 끌어 올릴 계획이었지만, 황동하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됐다.

이후 2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2패를 기록하며 반등에 실패했지만, 지난달 25일 삼성전부터 살아날 조짐을 보이며, 마침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7일 현재 7회에 머물러 있는 KIA에게 윤영철의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호투를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고질적인 불펜 불안에 시달리던 KIA에게 큰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의미다.

윤영철이 선발로서 긴 이닝을 책임져 준다면, 불펜진의 부하를 덜어주고, 이는 곧 전체 투수진의 안정과 강력한 마운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영철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김도현과 함께 국내 선발진의 핵심으로 성장하며 팀의 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투수들의 성장과 함께 KIA가 전반기 막판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윤영철의 어깨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청 고승환, 코리아오픈국제육상 '금빛 질주'

남자 200m 결선 20초54...팀 동료 이재성은 2위

고승환(광주시청)이 2025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200m 정상에 올랐다.

고승환은 8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선에서 20초5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재성(광주시청)이 20초58로 2위, 니시 유다이(일본)가 20초8로 3위를 차지했다.

전날 남자 100m에서 10초34로 우승한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은 200m에서는 20초90으로 4위에 머물렀다.

고승환은 한국 역대 3위인 20초49의 기록을 보유한 현역 한국 200m 일인자다.

남자 200m 한국 기록(20초40 박태건) 경신을 목표로 달리는 고승환은 이날 20초54로 우승하고도 기록을 확인한 뒤,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여자 200m 결선에서는 쓰루다 레미(일본)가 23초79로, 26초18의 신가영(구미시청)을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유규민(용인시청)은 남자 세단뛰기에서 16m57을 뛰어 1위를 차지했다. 16m09를 뛴 사미 바키투(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에 올랐다.

유규민은 1차 시기에서 초속 28m의 바람을 등지고 뛰었다.

세단뛰기에서 초속 2m 이상의 바람이 불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순위를 가릴 때는 2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세운 기록도 반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2개국 60여 명의 선수가 12종목에 출전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2025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20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고승환(왼쪽)과 이재성.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KIA, 12일 삼성戰 軍장병 2천명 초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광주·전남 지역 군 장병 2천명을 초청한다.

이들은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다양한 간식 지원까지 받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022년부터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군 장병 초청 행사를 마련한 KIA는 올해도 군 장병을 초청하며 뜻 깊은 행사를 4년째 이어가게 됐다.

이날 경기에 초청하는 장병은 제3보병사단과 제3할대사령부, 제1전투비행단 등 광주·전남 지역 영토와 영해, 영공 방위의 주역들이고, 3루 관망석에서 야구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KIA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헌신하는 군 장병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4년째 뜻깊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켄



지난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군장병 초청행사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피언스 필드를 방문하는 군 장병 모두 야구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KIA는 이날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하는 군 장병 모두에게 간식 등의 먹을거리와 응원용 페이퍼 스틱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홍철 기자

안세영, 4년 만에 인도네시아오픈 제패

세계 2위 왕즈이에 2-1 역전승 올해 들어 5번째 국제대회 우승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또 한 번 왕즈이(중국)에게 패배의 쓴맛을 선사하며 4년 만에 인도네시아오픈 왕좌를 탈환했다. 올해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이다.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를 2-1(13-21 21-19 21-15)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이 인도네시아오픈 시상대 맨 위에 선 건 2021년 대회 첫 우승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천위페이(중국·5위)에게 져 준우승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안세영은 최근 왕즈이를 상대로 보인 강세를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갔다.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부상을 안고도 왕즈이를 2-1로 잡은 안세영은 4월 সুডি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결승 여자 단식 경기에서도 2-0승리를 거둔 바 있다.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직전 싱가포르오픈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8일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역전승을 거둔 후 포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서 끊긴 국제대회 우승 흐름을 다시 살렸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로 우승한 뒤 সুডি르만컵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모두 2-0으로 이긴 안세영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오픈 8강전

에서 천위페이에게 0-2로 패해 고개를 숙였다.

이는 안세영이 2025년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맞은 패배였다. 난적으로 끝나는 천위페이는 이번 대회 8강에서 부상으로 기권했다. /연합뉴스

연장에 강한 이가영, 통산 3승

셀트리온 퀸즈마스터즈 우승

이가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했다.

이가영은 8일 강원도 원주시 성문안CC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타를 기록한 이가영은 한진선, 신인 김시현과 함께 연장전을 벌여 연장 두 번째 홀인 18번 홀(파5) 버디를 잡아 승리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롯데오픈에서도 연장전을 치러 우승하며 2승째를 따낸 이가영은 11개월 만에 거둔 투어 3승째도 연장에서 일궈냈다.

12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마친 이가영은 사실 우승 가능성이 희박했다.

13언더파였던 한진선이 18번 홀에서 1.5m 파 퍼트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진선이 이 퍼트를 놓치면서 극적으로 3명의 연장전이 성사됐다.

1차 연장에서는 한진선이 10m 버디 퍼트를 먼저 넣으면서 1.5m 거리 버디 퍼트를 남겼던



이가영이 8일 열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KLPGA 제공>

이가영을 압박했으나 결국 2차 연장으로 승부가 이어졌다. 김시현은 1차 연장에서 탈락했다.

2차 연장에서 이가영은 세 번째 샷을 또 1.6m 거리에 불인 반면 한진선은 홀 9.4m 거리를 남겨 다시 이가영이 유리한 상황이 됐다.

한진선의 버디 퍼트는 이번에는 홀을 지나쳤고, 이가영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넣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가영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 우승 상금 2억1천6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